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음 5월 6일) 제20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배수개선 신규사업 국비 1381억 확보

전북도, 기본조사 4·신규착수 7곳 등 11지구 상습 침수 피해발생 농경지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전북도는 최근 상습 침수 농경지 해소와 안전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7지구와 기본조사 4지구 등 총 11지구 선정 및 국비 1,381억원을 확보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설득의 결과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시행을 통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설치로 매년 우기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침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정된 2018년 신규 설계 착수 7지구는 군산 옥서, 익산 황등, 김제 평사·옥서, 임실 호안, 고창 대장, 부안 마포지구로 올해부터 향후 5~6년간 국비 916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연내 면밀한 현

지 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설계를 완료 후 내년 초 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배수장 설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농경지 상습침수 등의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된 익산 화산2, 남원 서천, 완주 삼례, 부안 동진1 지구는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1~2년 소요)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우선 순위 검토 등을 거쳐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착수된 5지구는 전지구에 대해 연초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원활하게 사업 시행 중으로,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건실하게 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농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는 '2018 전주단오'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주덕진공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올해 신설된 가족웃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2018 전주단오 성료 창포물에 머리감고 웃놀이도 즐기고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는 '2018 전주단오'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2만여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에는 단오 하루 전인 일요일부터 행사가 진행되어 전년보다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약쑈 인절미체험, 장명루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다가올 단오를 준비했다. 단오날 당일에는 전북지역 곳곳에서 어르신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단오씨름대회와 그네뛰기대회, 풍류공연, 단오음식체험을 즐기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단오를 즐기는 장관을 이루었다.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친절한 단오이야기를 함께 곁들여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및

친절한 단오이야기 곁들여 가족웃놀이 경연대회 신설 대동축제한마당·풍류공연도

허져 가는 단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교육적인 효과를 높였다는 평이다. 작년보다 체험공간과 기회를 늘린 단오음식체험을 통해 예부터 단오날 즐겨먹던 음식을 무료로 즐기며 단오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해에는 행사가 주말을 포함한 만큼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된 가족웃놀이 경연대회는 사전접수된 18개팀의 가족이 왓지지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함께 구경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향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더

욱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또 투호던지기과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를 통해살갓과 땀기 같은 추억의 주전부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이벤트가 수시로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주시 33개동이 참여하는 씨름, 웃놀이, 그네,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겨루기는 각 동을 대표하는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며 흥겨운 대동축제한마당을 만들었다. 특설무대에서는 양일간 세계민속춤페스티벌과 30여팀 250여명이 참여한 단오풍류공연이 이뤄져 행사장에 흥겨운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이밖에도 전주부채문화관의 부채 소장품전, 단오공예체험, 어르신장수사진촬영 등의 행사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했다.

행사운영에 있어 시민경찰의 야간 방범, 의용소방대의 의료활동, 전주 시시설관리공단의 협조 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또 대학생들의 시험기간과 행사기간이 겹치며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성심여고 한옥마을지킴이봉사단 20여명, 전주시여성자원봉사자 30여명, 온고을문화재지킴이 30여명이 봉사에 참여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축제성공에 힘을 더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황권주 국장은 "단오를 맞아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창포물에 머리감고 세시풍속을 즐기며 단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을 보냈으며 앞으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행사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우체국, 워킹맘 우대 '마미든든 적금' 출시

전북지방우정청 (청장 김성철)은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워킹맘을 우대하는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을 1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마미든든적금'은 실명확인의 개인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한도 월 1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하며, 1인 1계좌에 한하여 전국우체국 어디에서든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3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2%이며, 일정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받아 최고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경제활동 중인 기혼 여성을 위한 '여성우대 연 0.2%p' 결혼 이민 여성·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여성 등 소외여성을 위한 '나눔우대 연 0.4%p' 자녀수에 따른 '자녀우대 연 0.4%p' 예금거래 실적에 따른 '거

래우대 연 0.4%p' 등 최대 1.4%p가 주어진다.

또한, 금리 외에 부가서비스로 이 적금에 가입하고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우체국소포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신상품 출시를 기념 7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체국 아이LOVE적금' 동시 가입 고객 중 5명을 추첨 세탁건조기(200만원 상당 1명)·공기청정기(100만원 상당 2명)·식기세척기(100만원 상당 2명) 등 가전제품을 ▲신규 가입 고객 중 1,000명을 추첨 '나만의 우표' 무료쿠폰을 증정하며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친환경 '마미든든 머그컵'과 '붉은악마 공식티셔츠'도 증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매일 INDEX
2면 - 윤곽 드러낸 신북방정책
3면 - "한국당, 중앙당 해체할 것"
4면 - 전주시민의 날 성황리
16면 -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이모저모